

이미지 중심의 '보는 책' 시대 이끈다

100종 넘어선 대원사의 「빛깔있는 책들」

전문지식의 대중화를 표방하며 종래의 읽기 위주의 책에서 '보는 책'의 시대를 활짝 열어 보였던 대원사(대표 차민도)의 「빛깔있는 책들」이 최근 고미술 분야의 「단청」(임영주 글 / 김대벽 사진)을 출간함으로써 마침내 1백종을 넘어섰다.

손에 쥐기 알맞은 크기(A5변형)에 백색의 고급용지를 사용 전면 컬러인쇄한 「빛깔...」 시리즈의 각 책들은 120면 안팎의 부담없는 두께에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문화의 전반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세세하게 목록을 꾸미고 있는 데다 알기쉬운 내용설명과 시원시원하게 배치한 사진들로 일반독자들에게 호평을 받아 왔던 시리즈

“책읽기가 의무와 지겨움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풍요로운 삶의 방식을 향하는 즐거움이어야 한다”는 착안에서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88년 6월 첫책을 발간한 이래 매년 30, 40권씩을 발간해와 3년이 채 못된 현재 100권을 넘어선 것.

‘민속’ ‘고미술’ ‘불교문화’ ‘음식’ ‘생활’ ‘건강’ ‘한국의 자연’ 등 모두 7개의 큰 주제에 나뉘어 담긴 「빛깔...」의 목록을 살펴보면 이 시리즈의 이름만큼이나 다채롭고 흥미롭다. 우선 우리 문화에 대한 폭넓은 교양과 지식을 높여줄 항목들로, 민속 분야에는 「짚문화」(인병선)를 비롯해 「소반」(나선화) 「전통자수」(한영화) 「우리의 옛악기」(장사훈) 「전통부채」(금복현) 「농기구」(박대순) 등 모두 19종이 출간돼 있고, 고미술 분야는 「한옥의 조형」(신영훈) 「문방사우」(이점노) 「고인쇄」(천혜봉) 「전각」(김태정) 「안압지」(고정희) 등 20종, 불교문화 분야가 「불상」(진홍섭) 「옛절터」(윤덕향) 「보살상」(박도화) 「미륵불」(김삼룡) 등 20권이 나와 있다.

또한 취미와 여가생활에 도움을 주는 내용들을 담은 항목들로 생활·음식 분야의 책이 「다도」(이기운) 「동양란 가꾸기」(윤국병) 「거실 꾸미기」(뿌리깊은나무) 「오디오」(전창훈) 등 26종, 건강 분야가 「요가」(정태혁) 「볼링」(허일웅) 「기공」(민정암) 「태극권」(〃) 등 7종,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연 편은 「집에서 기르는 야생화」(김태정) 「한국의 텃새」(윤무부) 등 8종이 현재 선보이고 있는 책들.

각권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0매 안팎이어서 전문분야의 설명으로는 다소 소략한 느낌도 있으나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일반인들도

책읽기가 의무와 지겨움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풍요로운 삶을 향하는

즐거움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 88년 그 첫권을 선보인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가

100권째를 넘어섰다.

기존문고의 틀을 벗어난 참신성으로

크게 주목을 끌었던 이 시리즈는 특히

「보는 책」으로서의 본격적인

지향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접근이 용이하도록 알짜배기 내용들을 평이하게 서술해 놓아 오히려 좀더 깊은 전문서로 갈 수 있는 「입문서」의 역할을 독특히 해주고 있다. 또한 국내 정상급 사진작가들이 찍은 컬러사진이 매권 60~200여장 들어가 독자들이 재미있게 보며 읽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미적 공간의 극대화를 꾀한 편집방침은 사진과 글이 적절하게 조화될 활달한 면구성을 가져와 독자들이 어렵지 않게 전문내용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같은 편집·제작상의 숨은 노력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 시리즈는 4차례에 걸쳐 출판 관련 상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우리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문화부장관 감사패를 받은 것을 비롯해 한국출판학회상, 제1회 불교출판문화상을 수상했고 올 2월에는 「기존 문고의 틀을 벗어난 참신성으로 한국출판의 질을 고양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제31회 한국출판문화상(한국일보사 제정)을 받았다.

「빛깔...」 시리즈를 기획할 당시 연령, 학력, 종교 등이 다양한 잠재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이 시리즈의 필요성과 시장성 등을 조사, 어느 정도 가능성을 점쳐 의욕적으로 간행을 시작했으나 사실 「시장성」에는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원사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간행된 100종의 책들 가운데 초반 3천부를 모두 소화하고 재쇄 이상에 들어간 것만 모두 57종으로 당초 예상과는 달리 판매면에서도 꽤 괜찮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6종의 책은 3쇄 이상 찍어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셀러로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조형사고를 바탕으로 한옥의 구



조와 미를 밝힌 「한옥의 조형」(신영훈), 차에 관한 이론과 실체를 다룬 「다도」(이기운), 옛 선비들의 풍류의 컴퓨터이며 정치의 현상이었던 전국의 유서깊은 정자를 한자리에 모은 「한국의 정자」(박언곤), 난을 감상하고 돌보는 요령을 꼼꼼히 살핀 「동양란 가꾸기」(윤국병), 돌 하나 기둥 하나에도 심오한 사상과 상징이 배어있는 사원건물들을 종류별·용도별로 소개한 「사원건축」(신영훈), 요가의 효과와 수행의 실재를 초보자도 알기쉽게 시범과 함께 설명한 「요가」(정태혁) 등이 그것.

그러나 원색인쇄에 따른 제작비가 일반단체본의 몇배 이상 드는 데도 많은 독자의 ‘가벼운 마음’을 위해 책값을 발간 당시의 2800원에 불박아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적자를 못 벗어나고 있는 형편. “저렴한 가격으로 폭넓은 독자를 수용, 독서의 대중화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던만큼 「빛깔...」을 통해 독자들이 소멸되어가는 우리문화를 아끼고 계승하려는 재인식의 작은 계기가 된다면 다소의 적자가 있더라도 좋은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출판인의 사명을 지켜나가겠다”고 대원사측은 밝히고 있다.

101권 이후로 현재 제작중인 책으로는 「용기」(정양모 외) 「민화」(유홍준) 「석등」(정명호) 「산사의 하루」(돈연스님) 「관상학」(신기원) 등 각 분야에 걸쳐 37권으로 올해 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101종부터는 현재 권당 200매를 기준하고 있는 원고분량을 250매 정도로 늘려 내용을 보다 심화시키는 한편, 장정도 각권마다의 특성에 맞게 개성을 살려 단행본의 모양새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독자카드를 통해 수집했던 독자설문카드의 분석결과 독자층이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확대

되어가고 있는 점도 감안 편집에 신중히 참작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처럼 우리문화를 알리는 내용에 주력하면서도 그 소재를 전통문화나 생활문화에 한정시키지 않고 몽골·티베트·실크로드·돈황석굴 등 우리문화와 영향을 주고받았던 동양권의 주요 기저문화로 관심을 확대시켜나가는 한편, 일본 속에 남아있는 한국문화도 찾아내 책으로 담을 계획이다. 현재 「日本속의 한국문화재」 전3권을 在日역사가 김달수 씨에게 의뢰해 놓고 있다. 그리고 日本NHK출판부와 지금까지 간행된 1백종에 대해 일본어 번역판권계약을 체결, 우리 출판문화의 해외진출을 꾀하고 있기도 하다.

여태까지 사진이나 그림이 넉넉히 들어가고 원색으로 선명하게 인쇄된 책이라면 흔히 보 관용으로 아껴보는 비싼 책들이었으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빛깔있는 책들」의 시리즈는 이같은 기성관념을 깨뜨리고 책읽는 일을 부담스런 일로 여겨왔던 일반독자들에게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으로 여기게끔 하는 데 기여를 해온 몫이 크다.

“대중의 교양을 높이고 좀더 심오한 전문서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했으면”하는 출판사측의 바람은 취미와 여가생활에 도움을 주는 참한 읽을거리, 얼마간의 교양과 함께 관심분야에 대한 지식도 높여줄 적당한 책을 찾아던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어진 것으로 이후에 출간될 책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정혜옥 기자